

‘공룡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상



김 승 호 의
시 선

내가 사는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이 있다.

시장 한쪽에는 대형 식자재마트인 ‘세계로마트’도 있다. 마트에서 파는 야채, 과일, 육류, 해산물 등은 시장과 대부분 겹친다. 공산품도 마찬가지다. 불편한 동거다. 세계로마트는 2024년에만 12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계로마트는 세계로마트그룹 계열이다. 이 회사는 경기 의정부(호원동)에선 ‘세계로유통’이란 이름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로유통의 작년 매출은 1980억원이었다.

몹집이 더 큰 식자재마트도 있다. ‘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상호로 전국 11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조그룹의 푸디스트는 지난해에만 총 1조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지난해 매출 규모가 4502억원에 이른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공룡이 된 곳들이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출점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이렇다보니 일정 규모 이상인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 SSM과 똑같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이들이 법을 피해가기위해 대형마트 기준인 ‘3000㎡’를 넘지 않게 운영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 쪼개기’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입점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해 관계에 따라 업계가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식자재마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식자재마트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규제에 따른 불편이나 피해가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항변이다. 면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몹집이 커지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생’과 ‘공생’은 지속성을 가능케하는 명제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도 기존의 대형마트나 SSM에 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정부부처가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식자재마트 편을 드는 것은 공색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참에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산업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식자재마트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집행 분야 요직에 앉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거론되는 인○○씨,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씨가 그들이다.

두 인물 모두 민주당의 외곽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설립에 크게 관여했다. 이 단체는 식자재마트가 주요 회원인 한국마트협회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분위기가 웬지 썰하다.

/ bada@metroseoul.co.kr

핀테크의 편리함과 ‘함정’



김 지 수 첩
안 승 진
(금융부)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가 발전하고 있다. 단순 송금 서비스에서 시작한 핀테크는 탈규제와 기술 발달에 힘입어 지갑 없는 시대를 가져왔고, 계좌 개설·대출 등 금융 거래는 이미 비대면의 영역에 진입했다. 각종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 흠어진 금융상품도 하나의 ‘슈퍼 앱’을 통해 비교·관리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각종 투자상품도 핀테크의 영역에 진입했다. 핀테크앱에서 종목 거래와 시황 조회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2020~2021년이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식이나 각종 파생상품도 핀테크 앱에 본격 입점했다.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핀테크 특유의 우수한 접근성이 고위험 상품과 결합해서다.

‘옵션’으로 대표되는 파생상품은 일반적인 증권 상품과는 달리 ‘전액손실’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기존 상품 대비 몇 배나 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수익률에 비해해 극대화된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한다. 의무 교육에는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핀테크 앱은 이같은 필수 교육을 수십 초면 풀 수 있는 퀴즈 형태로 간략화했고, 직관적인 사용자경험(UX)·사용자공간(UI)을 통해 상품의 매력을 부각시킨다. 초보 투자자에게 ‘맹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세대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참여하는 ‘빚투족’이 늘었다. 상반기부터 국내·외 자본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 때문이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동참하는 젊은 투자자와 손쉽게 접근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 만나 ‘빚쟁이 청년’을 양산할 수 있는 형세가 됐다.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인터넷은행은 청년을 대상으로 무담보·비대면을 앞세운 ‘비상금대출’을 적극 취급했다. 소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던 만큼, 막대한 수요가 몰렸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수십만원에 불과한 빚에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 연체자’가 쏟아졌다.

핀테크는 우리 생활에 대체 불가능한 편리함을 가져왔다. 그러나 손쉬운 대출, 고위험 투자상품과 같은 위험성도 가까운 곳까지 끌어들었다. 이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몫으로 남았다. /asj1231@

오늘의 운세 11월 7일 (음 9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이루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48년생 물이 너무 많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60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지 못한다. 72년생 재혼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84년생 행운이 이어지니 훈훈한 인심을 보내자.



37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49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편하다. 61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의 덕은 있는 법이니 버려라. 73년생 오후에 갑자기 병문안 같을 이 생긴다. 85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38년생 기대를 접으니 결과가 감사. 50년생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62년생 같이한 동업자에게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 74년생 뿌린 대로 갚는다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86년생 서북 방향에서 과거의 귀인이 다시 찾아온다.



39년생 자식의 발전은 자식에게 맡겨놓자. 51년생 우물거에서 송능 찾듯이 서두르지 말자. 63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75년생 부동산 매매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살펴라. 87년생 사돈 만나서 대인관계에서 유약하지 않도록.



40년생 나의 결점을 찾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중요. 52년생 오후에 차량 안전에 주의. 64년생 더 노력해야 개선된다. 76년생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니 산란한 마음도 정리. 88년생 동창회에서 만난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여 베풀라.



41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보인다. 53년생 신용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65년생 불평보다는 상대방 처지에서 이해하라. 77년생 이금심도(以琴心術)하듯 휴일날 취미생활을 하자. 89년생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인색하지 마라.



42년생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54년생 상사와 대화 시 언제나 겸손하여지자. 66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공색한다. 78년생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의 도는 엄하다고 했는데. 90년생 가족에게 베푼 태도는 힘만 든다.



43년생 말을 절하는 것도 기술이니 습득하자. 55년생 근면하고 겸손한 배우자는 인생의 선물. 6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서 내실을 찾자. 79년생 연봉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베풀라. 91년생 활력이 있지만, 건강을 조사해 보자.



44년생 자칫 잘못된 만남으로 양다리 되지 마라. 56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니 승부사이다. 68년생 가정에서 부화부순(夫和婦順)해야. 80년생 이른 아침부터 순조로운 하루로 즐겁다. 92년생 어찌다가 술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45년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양보하니 일이 풀린다. 57년생 지나치게 겸손해도 실례가 될 수. 69년생 동료와 대인관계를 살들하게. 81년생 새벽에 일어나니 온 주변이 꽃동산이다. 93년생 겨울은 혼자서는 울지 않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46년생 남을 원망하지 마라 부족한 것은 나의 탓. 58년생 외국어 공부로 미래를 대비하라. 70년생 친구 만나 의외의 지출이 많다. 82년생 머리가 복잡하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후회 말라. 94년생 독단적인 결정은 손해수를 부른다.



47년생 고집부리다 아군이 적군으로. 59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에 이익을. 71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하지 말라. 83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려는 사람 막지 마라. 95년생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음이다.



김상회의四季 존엄과 품격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존재 욕구로 종족 번식 본능, 즉 성 본능이 기본 디플트라고 하는 주장들을 종종 본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생존과 번식이고, 여기에 기반을 둔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고상한 음악과 미술, 조각 등 문화와 예술은 물론 종교적, 정치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생존과 번식’ 본능의 반영이라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론 같은 거대한 담론엔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종족보존에 관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면 교미 후에 수컷을 물어 죽이는 거미나 사마귀 같은 곤충들처럼 인간도 나이 먹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사라져 줘야 마땅한 것인지 묻고 싶다. 삶이 본능에 충실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게 다는 아니지 않을까? 인간이 존엄과 품격을 소중히 한 예는 명예를 위해,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기를 포기한 존재겠다 싶다.

언젠가 타이타닉호의 비극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영화로서도 재밌게 보았지만, 당시 타이타닉호에 탑승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들 중의 많은 이들이 존엄을 잃지 않겠다며, 신사답게 죽겠다며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한 스토리에 가슴이 먹먹해진 기억이 있다. 당시 배의 일등석에 탑승한 VIP 중 VIP로 꼽힌 부자 벤저민 구겐하임은 가장 비싼 민간용 턱시도를 입고 양손에는 시가와 브랜드를 든 채 품위 있게 죽음을 맞겠다며 자신의 현 지처와 하인은 구명정에 밀어 넣고, 구명조끼라도 입어야 한다는 선원의 말까지 거부하곤 기품 있게 죽었다고 한다. 또 다른 VIP 존 제이콥 애스터 4세도 승객을 대피시켰고, 백화점 업계의 거물 스트라우스 부부는 구명정의 두 자리를 양보하고, 이 외에도 다수가 고귀한 존엄을 택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함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7 8 9 9 8 1 2
9 2 8 9 1 8 6 2 7
8 7 1 9 2 1 8 6 9
2 9 8 1 7 8 2 9 6
9 8 2 6 7 9 8 1
1 2 6 8 9 9 7 2 8
7 9 9 6 2 1 1 8 8
8 1 9 7 8 6 2 9 2
6 8 2 2 8 1 9 7 9

2 7 9 6 8 8 9 1
6 8 1 8 9 9 2 7 2
8 9 2 1 8 2 7 6 9
8 9 2 1 8 2 7 6 9
9 1 8 6 2 7 9 8 2
7 6 9 2 1 8 1 8 9
1 8 9 2 7 6 2 9 8
2 7 6 8 1 9 9 2 8
9 2 8 9 8 2 6 1 7